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새벽말씀

금주의 말씀 이어서 말씀해 주겠어요.

영적이고 신령한 자가 누구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신령한 자가 되리라. 영적이고 신령한자다. 기도 깊이 하는 자들은.

기도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것이 일이 그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은 혼자 하면 표가 별로 안납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해요. 자기도 해당되는데 같이 쓰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은 같이 해야 한다. 같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주인이 못되니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천사와 천군들, 어마한 사역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해주신다고 응답을 받았으니.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들, 하늘의 사역자들, 수십억, 수천억을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도해도 끝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월명동 작업할때도 하나님이 천사들 사람들 동원해서 끝없이 해서 해결되었어요. 이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기도하라. 혼자 하지말고 같이 그 일을 동참해서 같이 하라.

회개 기도를 새벽에 했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너무 많아요. 끝이 없어요. 일도 하면 일거리가 많듯이. 회개도 같이 해야 같이 용서받습니다. 개인, 민족, 세계, 섭리의 모든 죄들. 회개를 안하면 개인, 민족, 세계 운명이 뒤바껴버립니다. 안됩니다. 과거에 회개했죠? 회개치 않으면 죄값으로 계속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안받습니다.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하시고 하니,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몰라서, 성신을 몰라서, 성자를 몰라서, 무지로 살다 죽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살다가 아무것도 살다가 끝나요. 하나님을 배워라. 어떻게 배우냐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람 영도 안보이고 나 여호와와 영도 안 보이지 않느냐. 볼수가 없어. 자기 영도 있는데 못보고 나 하나님 영도 있는데 못보고 성령도 못보지 않느냐. 못봅니다.

배워라. 배우면 보인다. 깨달아진다. 알아진다. 못보면 모르면 그냥 살다 죽어버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른다. 배워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은 직접 못본다. 한단계 낮춰서 보라. 영을 한단계 낮추면 혼이지 않느냐. 혼은 보이죠? 혼은 잠잘 때 다 봅니다. 혼의 상태를 보고, 자기 육의 상태를 파악하고, 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한단계 낮춰서 보라. 낮추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낮추면 누구죠? 하나님의 보낸 자니라. 나 여호와가 그를 쓰고 일하지 않느냐. 육신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메시아가 없을 때는 선지자들이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도 나를 보고 누가 행하느냐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와같이 행하는 것으로 통해서 보는 것이다. 메시아때는 한단계 낮춰서 나타나지 않느냐. 직접 보지 못하면. 그러하나이다. 그래도 못 보는 자가 있느냐. 혼을 한단계 낮추면 자기 육이지 않느냐. 하나님 편의 한단계 낮추면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지 않느냐. 그래도 못 믿는 자는 그는 사망으로 가는 인생 밖에 안되느냐.

직접 못보면 밑의 단계로 낮춰서 보면 된다. 호랑이도 못 보면 새끼를 보면 어미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자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 부모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냐. 존재물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냐. 직접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왕을 볼수 있느냐. 큰자를 볼수 있느냐. 밑의 단계를 보고 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자꾸 배워라. 안 배우면 인생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아리가 있으면 어미닭이 있고, 밑의 단계가 있으면 위의 단계가 있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기도해서 신령한 하나님과 성령님도 옆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사망으로 가고 악한 자들의 꼬임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하면 개인, 민족, 세계의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는데 큰 냇물이 흘러가는데 가다가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해. 물을 건너가려면 그 막힌 것을 잔뜩 열어 붙은 것을 빼내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큰 배수관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이 건너가더라구. 못 건너 간다고 아예 안갔는데.

이와같이 기도는 일이니라. 기도하면 운명이 좌우된다. 많은 사람이 갈 길이 막혔을 때 가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전해주자고 했습니다.

기도는 밥먹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월명동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도 안하면 운명이 좌우된다.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내보냅니다.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왔다 갔다 말고 깊은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에 안됩니다. 하고 또 하면 마치 거친 나무를 뼈빠를 문대면 번질해져요. 일을 한다고 한번에 많이 됩니까? 계속 하면 개발해서 운명이 바뀌고 집도 계속 지으면 운명이 바뀌어서 집이 되고. 그렇게 꾸준히 계속 해야 됩니다. 안하면 병들어 죽고, 가난해 죽고, 사망으로 가서 죽고, 자기 명대로 못살고 죽습니다. 해야 돼요.

요즘은 맘과 뜻과 목숨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할 때 운명이 좌우된다. 여러분들 온 세계를 못 돌아다닌다니까. 어떤 사람 앞에 못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게 해주신 것과 똑같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한 단계 낮추면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못봐요. 낮은 단계를 보다가 위에 단계를 보는 거예요.

섭리 사람들 아직도 기도가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 병들고, 다치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요즘 하나님은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울며 불며 간구하며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육신이 10년 20년 한것보다 더 많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손으로 일하다가 힘드니까 울며 불며 큰 중장비 쓰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세계의 일, 민족의 일, 운명이 좌우됩니다. 혼자만 살면 됩니까? 민족이 쓰러지는데. 모든 것을 낱알이 기도해야 해요. 깨달은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인간들 법대로 하니, 하나님의 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세계인들이 가는데로 놔두냐고. 하나님 능력이 없냐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안하시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방향을 줍니다. 신나서 열심히 해야돼.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하니, 선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선생이 와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끼리만 기도해서는 안된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부딪혀야 한다. 너희 선생은 혼자이고, 너희는 많으니 누구든지 기도할수 있지만 너희 선생은 혼자이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 선생님이 기도할수 있게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말씀 하셨대요. 선생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앞날에 무슨 날

이 올지 몰라요. 선불리 하면 안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할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기도 안하면 안됩니다.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내가 10대 때 기도해서 그때 운명을 꺾었어요. 한없이 울며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인생을 꺾고 방향을 잡고 나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하루 3번 정해놓고 더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두 직장 다니는 자들도 생활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섭리인들이 시대를 깨닫고 가니 이들이 못하면 누가 하느냐. 본자가 안하면 누가 하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데 사탄 마귀 따르는 자들도 문제를 일으키니 기도하라. 나 여호와가 일하면 가만 두지 않으리라 했어요. 꼭 기도해야 된다. 내가 중국에 있을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내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했어요. 심판을 행하며 행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

말씀 마쳤습니다. 교회에서도 몇 명이라도 꼭꼭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몇 명이라도.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중얼 하지 말고 몇 명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라도 집에서 간절히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 때문만이 아니라 항상 그동안 못한 것이 다 죄가 되었어요. 전체가 해야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천사보내서 다 해버리십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 오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구요.